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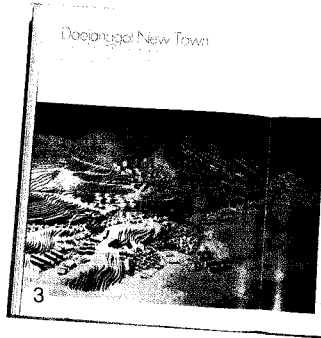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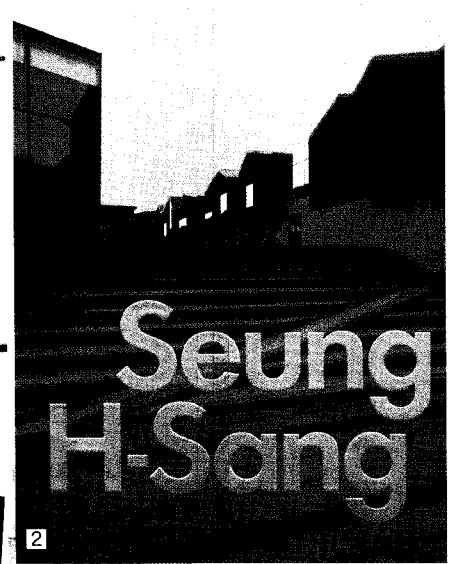
인쇄토털 서비스 업체 (주)팬다컴프로세스

서울인쇄대상 영예의 대상 받아

(주)팬다컴프로세스(대표이사 천용관)는 1988년 설립, 기획·편집·출력·인쇄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 최근 제5회 서울인쇄대상에서 'seung h-sang'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한 팬다컴프로세스는 국내 최초 디지털 자동교정시스템 콘센스 프로 도입은 물론 하이텔베그 국전4색, T3절5색 등의 첨단 인쇄기 및 디지털 인쇄기 추가 도입으로 토털 원스톱교정인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들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쇄·출판업계의 전문가들이 공동집필한 '디지털 그래픽 아트' 제작도 소화해 냈다. 이들 모두를 진두지휘한 천용관 대표이사를 만나보았다.



팬다콤프로세스의 자부심은 경영 방침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빠르고 신속한 CTP 컨설팅 즉, 작업시작에서 사후 관리까지 팬다콤프로세스는 고객과 함께 한다. 고객 중심의 인쇄, 출판 컨설팅으로 신속한 이미지 보정 및 합성, 디지털화된 이미지 보정 및 합성, 원고 제작 등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무자들의 철저한 교육 실시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도 및 서비스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팬다콤프로세스는 매년 꾸준한 매출신장을 올리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높은 세액납부 실적을 기록해 지난 '제38회 납세자의 날'에 재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 서울인쇄대상시상식에서 천용관 대표이사
2~3. 서울인쇄대상 수상작인 Seung H-Sang
4~5. 하이텔베르그의 인쇄기와 코닥C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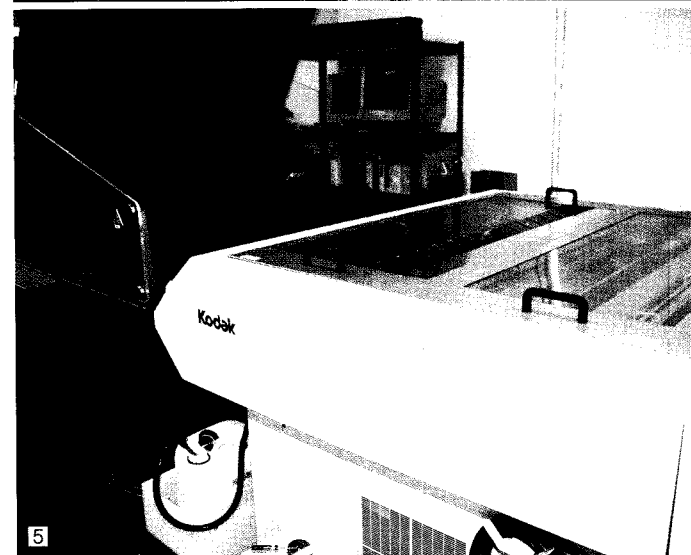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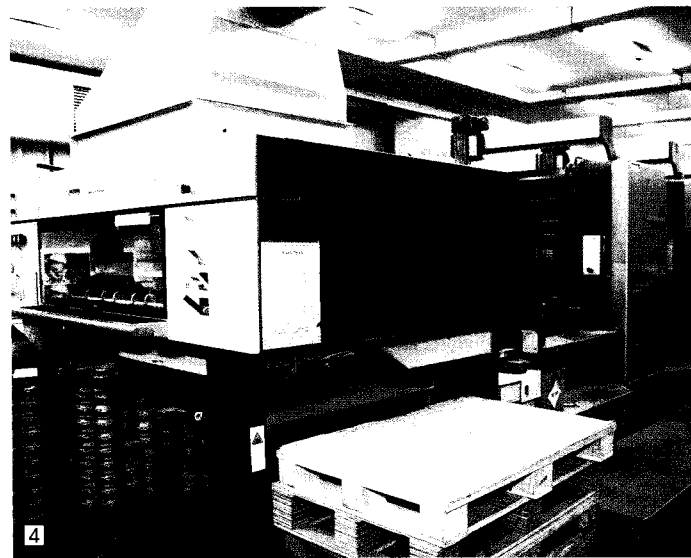
직원복지후생을 위한 생각이 먼저

팬다콤프로세스는 그동안 사업의 외연확대에만 노력해 온 것은 아니다. 직원복지후생을 위해 천 대표가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 옮김에 따라 직원 이직률이 동종업계에 비해 크게 낮은 것도 결국은 직원과 함께 하는 회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천 대표는 "고객들의 까다로운 품질 요구를 만족 시키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받는 것이 팬다콤프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라고 말하며 "지금의 팬다콤프이 있기 까지 창립 멤버들을 비롯한 장기 근로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팬다콤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관내 고아원 및 복지시설을 방문해 100만 원 이상을 매월 지원하는 등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정인쇄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최근 인쇄물량이 줄면서 교정인쇄도 역시 줄었지만 그래도 이곳만은 인쇄기가 쉴 시간이 없을 정도다. 이만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도 드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교정인쇄에 대해 천용관 대표는 "일반 인쇄보다도 더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데 이 분야도 3D 업종으로 알려져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인건비도 비싸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쇄기술자가 부족해지면서 실력도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교정인쇄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교정기의 등장에 대해 "지금 하는 일이 아날로그 그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디지털방식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거니와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날로그방식도 그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별색은 이 방식밖에 교정인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방식이 주류를 이루더라도 평대교정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Interview



천용관 대표이사

“인쇄출판 업계의 표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우선 서울인쇄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객들의 까다로운 품질 요구를 만족 시키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받는 것이 팬다콤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창립 멤버들을 비롯한 장기 근로자들이 많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금의 팬다콤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요새는 제가 인쇄일을 하고 있다는 게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해 더 좋은 품질의 인쇄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인쇄대상 수상작에 관한 특징 및 제작과정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수상한 'seung h-sang'은 약 6주간 작업을 통해 하이델베르크 국전 4색으로 교정인쇄를 했습니다. 표지는 아트지 300g, 내지는 스노우화이트 150g을 사용했습니다. 표지는 무광코팅 처리 후 부분적으로 특수 파장에 반응하는 잉크용재를 이용, 입자를 거칠게 하여 질감을 강조, 책을 만지는 손맛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서양의 건축이 세계 현대 건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의 현대건축 혹은 한국의 현대건축을 보여주고 우리 건축의 질박한 자연미와 공간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편집 의도에 맞춰 건축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소재를 적절히 표현하고자 색상과 컬러 톤의 흐름을 중요시 했습니다.

디지털 교정의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CTP가 인쇄물 디자인 작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디자인 업체들은 완성된 디자인 작품을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인쇄업체에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직도 교정, 제판 및 인쇄관련 많은 공정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고수되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대세로 보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물론 디지털화 촉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정 프로세스입니다. 특히, 디지털 컬러 교정 시스템을 구현하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및 CTP의 도입을 촉진시켜 생산시간을 단축시키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CTP는 데이터에서 직접 수행되는 디지털 교정은 필름을 출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산비용과 프로세스 절차를 절감할 수 있고 높은 생산 효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비용으로 고객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간편하게 교정 및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교정 품질을 유지하며 교정인쇄의 규격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팬다컴프로세스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일부의 단가인하 경쟁으로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정 거래처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단가 인하보다는 충분한 서비스로 한번 출력할 때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면 곧바로 인쇄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CTP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CTP오퍼레이터가 아니라 디자인과 출력, 인쇄를 아우르는 안목을 가지도록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쇄시장은 어떻게 변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타자기(아날로그)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출판(디지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쇄분야의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해도 책 한 권을 만드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객이 최종파일로 주문하면 컬러나 흑백에 관계없이 인쇄에서 코팅, 제책까지 완성되는데 5분 남짓 소요됩니다. 불과 수분 만에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경영자로서 해야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역할의 조율은 어떻게 하십니까?

최종결정은 제가 하지만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경리업무가 됐든 영업업무가 됐든 담당 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모두가 경영자라는 생각에 근거하며 회사는 혼자 설립했지만 운영은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환경은 스스로 만들어 가며 작은 것에서부터 경영의 기본을 지키고 내실을 다지면 자연스레 기업의 경쟁력은 향상됩니다. 꾸준한 기술 개발과 기본에 충실한 정도 경영으로 '고객맞춤기업'을 표방하고 이는 고객만족이라는 결실을 이뤄 인쇄출판 업계의 표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 매일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고객들의 관심에 성실히 보답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